

2017. 6. 7.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17년 6월 6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I·SEOUL·U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

보건의료정책과장

박 범

2133-7505

정신보건팀장

이 미 룡

2133-7544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4매

담당자

김 선 미

2133-7548

50대, 취약계층 우울증 상담하세요...서울시 정신검진서비스 확대

- 서울시 50대 정신검진서비스 취약계층 확대 실시, 자살위험군 선제적 예방 지원
- 50~64세·취약계층 시민, 145개 참여 의료기관서 무료 정신상담 최대 3회
- 시, 시민 정신건강검진 결과 따라 25개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지속 지원

- 서울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50대 무료 정신상담 서비스를 올해 64세까지 늘리고 취약계층까지 확대한다.
 - 시는 2015년부터 50대 베이비부머세대(1955~1963년생)를 대상으로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무료 정신건강검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.
- 서울시는 2017년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을 ▲연령 확대(50세 이상~65세 미만) ▲취약계층(서울시 주거위기가구 특별지원 대상자, 찾·동사업 발굴 자살 고위험 대상자) 등으로 확대해 실시한다.
 - 시는 최근 실직한 시민(영등포구 50세 남성, 관악구 61세 남성)이 월세를 체납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,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지원 대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.

- 이에 따라 50대, 취약계층 등 해당 서울시민은 145개 참여 정신의료기관(정신건강의학과의원)에서 무료로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. 상담은 1회를 기본으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.
 - 1회차 방문시 우울증 등에 대한 선별검사, 평가, 상담을 받는다. 2~3회차에는 약물치료 전 단계 심층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.
 - 참여 정신의료기관은 서울시(02-2133-7548), 보건소, 25개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. 블루터치 홈페이지(www.blutouch.net)에서도 볼 수 있다.

- 시는 이번 정신건강검진은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검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며 50대 시민들이 무료 정신상담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.
 - 정신의료기관에 방문해 약 처방을 받지 않고 상담, 설문지 작성 등 정신건강검진만 받을 경우, 건강보험공단에 보건상담진료(Z코드)로 청구되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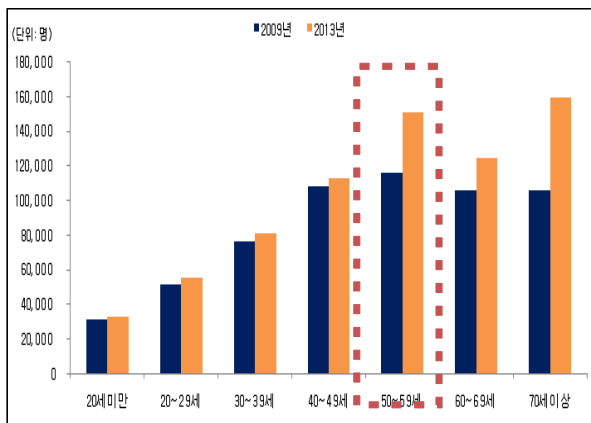
- 시는 시민이 상담 후에도 필요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자치구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.

-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“우울증 환자수는 50대가 가장 많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.”며 “서울시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50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인 정신검진서비스로 시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겠다.”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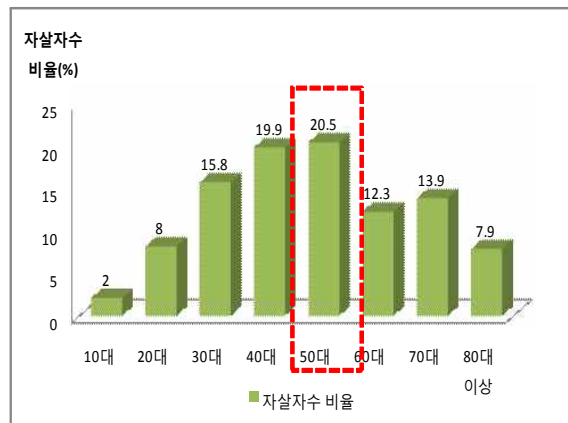
붙임1. 우울증 환자 현황 및 50대 지원 필요성

□ 현황 및 필요성

- **우울증 진료 환자수는 50대에서 가장 높고,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¹⁾**
 - 우울증 진료환자 중 전체 환자의 20.8%가 50대임(전체 연령에서 가장 높음)
 - 50대 우울증 진료자수는 4년 동안 30.1% 증가(2009년, 115,996명 → 2014년, 151,009명)
 - ※ 연령별 우울증 진료환자 비율 : 50대 (20.8%), 60대 (17.7%), 70대 (16.1%), 40대 (15.4%)
 - 서울시민 우울증 경험율(6.9%)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



〈연령별, 성별 우울증 진료현황〉



〈연령대별 자살자수 비율〉

- **자살자 비율이 가장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리 필요**
 - 50대는 자살 위험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, 자살률(10만명당)은 34.6명, 자살자수 비율은 전체 연령대의 20.5% 차지함²⁾
 - 베이부머 세대(55~63년생)의 자살률은 지속적 증가추세임³⁾
 - 자살률 : 18.3명(2000년) → 40.6명(2011년), 자살생각 경험자 : 7.1%
- **조기 은퇴 등에 따른 50대 우울증의 조기발견 체계 미흡**
 - 50대는 조기은퇴, 노후 불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정신질환 발생이 높지만,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진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음
 - ※ 국가건강검진시, 만 40세와 66세를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정신건강검진 실시 중

1) 2012 서울시 정신보건지표,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

2) 2014 통계청 자료

3) 한국보건사회연구원 :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의 자살특성 분석(2013년)

붙임2. 보건소 연락처

자치구	과명	팀명	전화번호
종로구	건강증진과	지역보건팀	2148-3602
중구	건강증진과	미래건강팀	3396-6383
용산구	의약과	정신보건팀	2199-8362
성동구	질병예방과	생명건강팀	2286-7093
광진구	건강관리과	마음건강팀	450-1934
동대문구	지역보건과	방문보건팀	2127-5384
종랑구	건강증진과	정신보건팀	2094-0853
성북구	의약과	보건보건팀	2241-6133
강북구	지역보건과	정신건강팀	901-7772
도봉구	지역보건과	생명존중팀	2091-4584
노원구	생활건강과	생명존중팀	2116-4328
은평구	보건지소	보건지소 방문보건팀	351-8662
서대문구	의약과	가족보건팀	330-8685
마포구	지역보건과	건강지원팀	3153-9042
양천구	지역보건과	방문보건팀	2620-3907
강서구	건강관리과	생명존중팀	2600-5271
구로구	지역보건과	방문보건팀	860-2618
금천구	건강증진과	생명건강팀	2627-2656
영등포구	건강증진과	정신건강증진팀	2670-4819
동작구	건강관리과	생명존중팀	2670-1425
관악구	지역보건과	정신보건팀	879-7182
서초구	건강관리과	마음건강팀	2155-8069
송파구	의약과	정신보건팀	2147-3417
강동구	지역보건과	건강증진팀	3425-6693